



11차 전기본 수립에는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전원 전문가가 참여 중임

〈보도 주요내용〉

9.27(수) 경향신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재생에너지 전문가 배제」에서는 11차 전기본 무탄소전원 실무반에 재생에너지 전문가가 배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11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무탄소전원 워킹그룹에는 재생에너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차 전기본 무탄소전원 워킹그룹에는 신재생을 포함하여, 원전,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력정책심의회 역시 전문분야와 소속 등을 고르게 안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11차 전기본 수립 위원회는 차질없이 구성되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우진	(044-203-3881)